

대표작 하나 없는 거장의 고향... “남도미술의 뿌리 되찾아야”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9)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8 오지호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오지호 화백이 부인 지양진 여사를 모델로 그린 ‘처의상’ 등 34점이 수장고에 소장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갑천변에 자리한 고암 이응노 미술관은 ‘미술관 옆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대전시립미술관과 거의 지붕이 맞닿을 정도로 붙어 있어서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면적 8407㎡ 규모라면 이응노 미술관은 시립미술관의 1/15에 불과한 540㎡이다. 대형 미술관의 ‘그늘’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최초로 무제오그라피(Museography·미술관 외관과 작품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도입한 ‘명품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빚어낸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다. 백색 콘크리트 건물 위로 한국 소나무가 고개를 내민 다소곳한 외관에선 격조가 느껴진다. 이 때문에 미술애호가와 건축학도들 사이에선 ‘꼭 가봐야 할 미술관’으로 통한다.

이응노 미술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문자(文字) 추상’의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일군 고암 이응노(1904~1989) 화백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 문을 열었다. 지난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한지와 먹을 소재로 한 한국적 화법에 서양적 어법을 접목시킨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했다. 1960년대부터 화면위에 마치 초서를 흘려 쓴 듯한 형상과 수묵의 번지는 효과를 조화시킨 문자추상은 국제 화단에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응노 화백은 광주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작가다. 프랑스에서 80년 5월 민주화 항쟁을 전해 들은 그는 ‘군상’시리즈를 통해 광주의 아픔을 위로했다. 한지에 먹으로 그린 수많은 인간들을 통해 억압속에서도 자유를 외친 혁명의 승고함을 형상화 했다.

대전시는 충남이 배출한 이응노 화백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탄생 100주년 해인 지난 2004년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 건립에 착수했다.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이응노 미술관에는 60년대 플라주, 70년대 문자 추상, 80년대 ‘군상시리즈’ 등 그의 예술세계를 조망해볼 수 있는 회화 259점, 서예, 디자인, 조각, 도자기, 유품 등 총 521점의 작품과 유품이 전시돼 있다. 4개의 갤러리(180평)에선 정기적으로 고암의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교육실에서는 동·서양을 아우른 독창적인 예술성을 조명하는 세미나와 학술연구가 진행된다. 지난 2009년에는 서울 경창동 가나아트센터와 이응노 미술관에서 그의 서거 20주년을 기리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려 재조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올해 고암의 예술세계를 전문적으로 연구·전시하는 고암문화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시립미술관의 산하조직으로 운영



30여년 동안 오지호 화백이 머물렀던 지산동 초가.

화순 기념관 유명무실...생각 유일 지취

현대미술관 소장 34점 대부분 수장고에

유학~노년기 작품 미술사적 가치 높아

“유작들 20 문화전당 글로벌 콘텐츠로”

해은 이응노 미술관을 재단법인으로 분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초대 이사장인 대전시립미술관장 출신인 이지호씨를 임명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예술가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과의 짧은 인연을 ‘문화상품’으로 키워 대박을 냈다. 한국전쟁을 피해 서귀포에 1년간 머물며 창작했던 정방동의 초가 옆에 지난 2002년 이중섭 미술관을 건립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한국화단의 거목 오지호(1905~1982)라는 독보적인 문화자원을 외면하고 있다. 광주에서 오 화백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때까지 30년동안 창작촌을 불태운 지산동 초가(1986년 광주시 기념물 제6호)가 유일하다. 물론 광주시립미술관에 ‘추경’ 등 작품 8점(드로잉 1점 포함)이 소장돼 있지만 상설전시관이 없

어 특별기획전이 열리지 않는 한 평상시엔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 고향인 화순군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동북면에 건립한 오지호 기념관 역시 소장품 51점 가운데 진품은 고작 1점뿐이다. 게다가 전시관 운영의 필수요건인 학예사가 없다보니 기획전과 프로그램 운영은 엄두도 못낸다. 때문에 오지호 화백의 예술세계를 접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외지인들은 지산동 초가 이외에는 거장의 자취를 느낄 수 없다.

이를 두고 지역미술계에서는 오는 2014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오지호 화백의 유작들을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본보가 창사 55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캠페인을 재점화시켜 결실을 이뤄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캠페인은 지난 1985년 오 화백의 유작들이 전남도에 기증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미술관이 없어 할 수 없이 타향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건너간 작품 34점을 되돌려 받자는 것으로 광주시와 현대미술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기증 당시 현대미술관은 유족들에게 상설전시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남향집’ 등 5~6점만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작품을 지하 수장고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일본 풍경’, ‘무등산록이 보이는 구월풍경’, ‘함부르크 풍경’, ‘꽃-넬피니움’ 등 일본 유학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작품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등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미술인들은 “오 화백의 기증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수장고에 사장돼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작품 반환이 어렵다면 영구임대 형식으로 광주로 가져와 번듯한 공간에서 빛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은 국가재산인 만큼 반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근대 서양화의 선구자인 오 화백의 작품들을 광주로 가져온다는 것은 남도 미술 뿐 아니라 한국미술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면서 “현대미술관과 영구임대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지산동 초가 인근에 오지호 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광주시와 함께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설계한 고암 이응노 미술관 전경. 이응노 화백의 작품 521점과 유품 등이 전시돼 대전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이응노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